

“수덕사와
선학원 소송
내 뜻 아니었다”
전 감사 석청스님 회견

전 선학원 감사 석청스님이 정혜사와 간월암 소유권 문제와 수덕사와 소송을 진행했던 것과 관련해 본인의 뜻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석청스님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혜사 본원장이면서 내 뜻과 다르게 (수덕사와) 민사, 형사 재판을 시작했다”며 “이는 내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소를 취하하게 된 것과 관련해서도 “어른 스님 모시는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소 취하를 하게 됐다. 일부에서는 수덕사에서 돈을 받고 (소를 취하) 했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앞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석청스님은 지난 7일 정혜사가 수덕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혜사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 간월암 주지 정암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청구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또 석청스님은 “지난 16일 선학원 이사회에서 나를 감사에서 해임했는데 과연 멀쩡한 사람들이 감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사회 의 결정을 비판했다.

한편 석청스님의 주장에 대해 선학원측은 내부 검토를 거친 뒤, 기자간담회를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연합뉴스 기자 che11@ibulgy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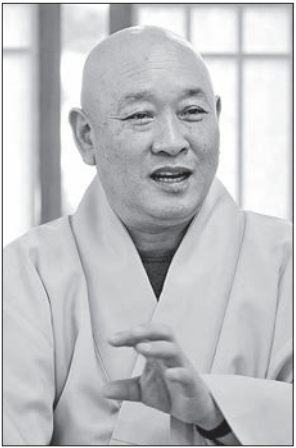
“쌍용차 해고자
복직교섭 환영”
조계종 노동위 성명

쌍용자동차 노사가 하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위한 교섭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노동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해운스님)는 “해고자들에게 지옥 같았던 5년5개월이 지나고 복직 교섭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썩이 보이기 시작했음을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노동위원회는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커다란 슬픔과 숙제를 한국 사회에 던진 쌍용차 정리 해고 문제는 우리 모두의 업의 덩어리였다”면서 “‘신차 출시와 함께 이뤄진 복직 교섭의 결말이 노사 양측의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마음으로 설 이전에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
이경민 수습기자 kylee@ibulgyo.com

2015년 새해 계획
총무위원에게 듣는다

① 총무부장 지현스님



“소통과 화합, 혁신으로 종단 미래를 준비하고 희망의 한해를 만들겠습니다”라는 2015년 종단 운영기조를 실천하기 위해 중앙총무기관은 본격적인 사업계획들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총무부 주요 사업은 종단 핵심과제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지난 22일 총무원 총무부장 지현스님(사진)을 만나 올해 총무부 주요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지현스님은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2015년 종단 핵심과제인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승려복지 △중앙·교구 균형발전 등이 올해 총무부 주요사업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현스님은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이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는 문화벨트를 구축하는 일이자 불교계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역사교육의 장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이어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진행 중인 적정성 검토가 마무리되는 오는 6월말 이후, 10·27법난 기념관 건립을 위한 사전 용역작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제33대 집행부부터 추진되어 온 성과물인 승려노후복지제도 시행역시 확산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둘 방침이다. 승려복지법 개정에 따라 임원진료비와 노인장기요양급여비 등 의료비 지원이 이뤄지고 수혜대상도 1000명에서 8000명으로 대폭 확대된 만큼 제도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취지다. 지현스님은 “스님들이 수행과 전법에 매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는 큰 걸음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많은 스님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교구본사와 협력하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승보공양 후원사업도 꾸준히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중앙과 교구 균형 발전을 위해 교구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강화해 “교구가 총무원과 말사의 중간 행정조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설립된 중앙·교구 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각종 의제를 선정하는 한편, 의견

수렴을 위한 연찬회, 공청회 등도 계획 중이다. 미등록 법인에 대한 법인등록 독려와 선학원과의 갈등 해소에도 힘을 쏟는다. 2월까지 종단 등록을 진행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며, 이후 미등록 법인에 대해서는 제재와 관리제환을 실시할 계획이다. 선학원 문제는 특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대화를 통해 협의해 나가는 등 꾸준히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종단 스님들의 의제 통일, 일반직 종무원 교육 강화, 인사관리 규정 개선 등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연합뉴스 기자 che11@ibulgyo.com
사건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현역-예비역 연계 군포교 활성화”

총무원장 스님, 군불교 임원단에 당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군불교총신대회, 국군예비역불자회 등 군종교구 임원단과 군승 대표의 예방을 받고 군 포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앞으로 군 불자들이 전역하더라도 신행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군법사와 포교원, 지역사찰이 연계한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

해 군종교구장 정우스님은 “(전역 불자들의 신행을 돕기 위해) 예비역 법사들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임춘빈 예비역불자회 자문위원은 “지역사찰과 연계한다면 포교 효과가 크다. 앞으로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며, 박정기 자문위원도 “군법당 신축 못지않고 기존 법당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종단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자 che11@ibulgyo.com



지난 22일 군종교구장 정우스님, 남장 김갑영 육군선임법사, 군불교총신대회 고문 최현국 소장, 임춘빈 예비역불자회 자문위원 등 군종교구 임원단이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본·말사 주지 인사 (1월21일 총무회의)				
법화스님 서울 적조사	지강스님 안성 칠정사	현천스님 안양 염불사	중본스님 대전 비로암	지명스님 청송 청송포교당
보연스님 진안 금당사	정덕스님 화순 규봉암	인오스님 강진 월남사	혜전스님 제주 보덕사	효선스님 강화 미법사

부석사 보살님을
부석사에 모실려면...



홍다영 기자의
현장에서
hong12@ibulgyo.com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을 본래 자리인 부석사에 봉안하기 위한 국민청원운동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제자리봉안위원회’는 지난 7일 국민청원운동발대식을 갖고 10만 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봉안위는 다음 아고라, 아비즈, 페이스북 등의 온라인 매체와 지자체 등을 총동원해 10만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에 들어갔으며, 취합된 서명부는 3·1절을 즈음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산시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다.

절도법들이 일본에서 훔쳐 국내로 밀반입한 부석사 불상은 지난해 대전지법이 ‘정확한 유출 경위가 확인될 때까지 일본 반환을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되고 있다. 법적인 문제가 풀릴 때까지 일체 접근이 불허된 탓에 일반에서는 아예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검찰의 접근 금지 딱지가 붙여진 채 수장고에만 갇혀있는 불상의 처지가 안타깝기 그지없다. 우여곡절 끝에 고국으로 온 지 2년이다 돼 하지만 불상은 단 하루도 사찰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봉안위에 따르면 불상이 일본 관음사에 있었을 때도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금동관음보살상은 원래 봉안됐던 부석사에서 불자들의 예경을 받을 때만이 본연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서산 부석사로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 봉안위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정확한 반출 경위를 놓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일본 정부 또한 무조건 돌려달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어떻게 대마도로 간 건지에 대해 정확한 조사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부터 불교미술학자들을 중심으로 대마도에 있는 불상 관련 연구를 꾸준히 해 왔지만, 일본은 제대로 된 조사 자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팔공총림

동화사

불기2559년

승가대학(원)

학인모집

동화사 승가대학

모집대상

신입생 00명, 편입생·재입학생 00명

모집기간

불기2559년 3월 31일(화)까지

구비서류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승가대학 학력 이수 증명서(편입생, 전입생, 재입학생에 한함)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문의처

강원 053)985-7934, 학감 010-6422-3895

특전

1. 성덕대학교 불·학 협약을 체결하여 사학복지과에 다닐 수 있으며, 모든 학인스님들에게 장학금 지급

2. 해외 성지순례

동화사승가대학

학장 우암 양관

울학승가대학원

모집부문

전문과정, 연구과정

모집인원

통학 00명, 상주 0명

지원자격

종단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자 및 비구스님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

3. 승려증 사본

4. 기본교육기관 졸업증명서(졸업예정서)

5. 건강진단서(보건소제외) (사증거주 학인만 해당)

6. 사진(3×4) 3매

7. 연구계획서(연구과정 지원자에 限)

모집기간

불기2559년 3월 15일(일)까지 (전형은 추후 개별 공지)

문의처

053)980-7954, 지객 010-2800-3824, 010-4013-9751
문자 후 전화요망, 동화사 홈페이지 참조

울학승가대학원

원장 혜수

한문불전승가대학원

모집대상

비구·비구니스님 및 재가자

학제

• 2년 4학기, 주 1회 수업, 연 2회 2박3일 특강

• 수업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9시

• 수업장소: 보현사 내 보광명당 (대구시 중구 남산동 932-35번지)

• 수강료: 한 학기당 50만원

교과과정

• 절요, 육조단경, 금강경, 원각경

• 대승기신론 특강(예정)

접수기간

불기2559년 3월 15일(일)까지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 승적증명서 또는 승려증 사본 (스님에 한함)

• 반명함판 사진 2매

개강일자

2015년 3월 9일 (월요일)

수료자특전

동화사 한문불전 승가대학원 졸업시 3급 승가고시 응시에 필요한 교육경력 2년 인정

문의처

053)252-3445, 동화사 홈페이지 참조

한문불전승가대학원

원장 윤암 선지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1길 1

전화

053)980-7900

홈페이지

www.donghwasanet